

# “민·관 모두 나서는 광주 인권 배우러 왔어요”

## 광주 온 세계인권선언 오사카연락회의 도모나가 겐조 단장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인권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광주는 이미 5·18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세계적 인권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일본 오사카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세계인권선언오사카연락회의 도모나가 겐조(67) 단장이 회원 15명과 함께 광주를 찾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의 초청으로 광주를 찾은 겐조 단장 일행은 오는 23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국립5·18민주묘역, 구 전남도청 등 5·18유적지와 광주시청,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을 방문해 UN 인권도시 조성을 향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도모나가 단장은 “광주는 역사에 의존하지

않고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광주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자체, 시민단체, 민간단체, 학계 등이 모두 나서 민주와 평화, 인권을 하나로 모아 광주다운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은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전했다.

도모나가 단장은 지난 1967년부터 일본 사회 내에 깊이 뿌리박힌 천민신분 차별을 일컫는 ‘부락’해방 운동을 벌여왔으며, 1980년대부터는 일본의 ‘인권 조례’ 운동을 주도해온 일본 인권의 산 증인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인권 운동의 시작과 전개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양국이 끊임없이

는 교류를 통해 인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50여 년 앞선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만큼이나 모든 지자체의 행정부에 인권 부서를 갖추고 있으며, 인권조례 제정이 활발해 한국의 지자체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반면 국가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에 인권사무소를 둔 한국의 노력은 일본이 배워야 할 점으로 꼽았다.

도모나가 단장은 “5·18민주묘역을 돌면서 느낀 점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이 ‘하나’가 되어 민주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며 “일본으로 돌아가면 5·18에서 배운 ‘하나’라는 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려 여전히 일본 사회문제로 남아 있는 부락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국립공원의 아생화

#### 분홍색 부리 가진 방울새 닮아



<105> 큰방울새란 큰방울새란 난초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햇볕이 잘 드는 습지나 산중 계곡습지 등에서 자란다. 유난히 피약발을 좋아하는 습지 식물로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데 점차 습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유독 두껍고 분홍색 부리를 가진 방울새와 닮은 ‘큰방울새’는 몸체에 비해 큰 꽃을 우아하게 피운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 노관규 순천시장 농업 선도인 상



노관규(사진 오른쪽) 순천시장이 20일 우리의 뿌리이며 미래인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역농업 선도인 상을 수상했다.

노 시장은 농업 관련기관과 농업발전 협력 체계 구축, 순천미인 농산물 브랜드화,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미래지향적인 유공 미생물 배양실 신축 운영, 미래 농업을 위한 IT 첨단 농업센터 건립 등의 공적을 인정 받았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 정남선 안도농협 조합장 산업포장



정남선(사진) 안도농협 조합장이 최근 농협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전국 농업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농업 사업구조개편 유공자로 선정,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지난 2007년 옛 고금농협과 청해진농협을 합쳐 탄생한 안도농협은 2009년 약산·금일농협을 흡수합병한 뒤 3년 연속 20여억원의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편협, 김석동 금융위원장 초청 포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사진)는 22일 여수 디오센터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초청, ‘금융정책 현안’을 주제로 편협 포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포럼에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경제·산업부장이 참석한다.

## “필리핀 억류 김규열 선장 곧 석방 될 겁니다”

### 공판과정서 마약소지 혐의 경찰 위증 확인돼 구명운동 앞장 박혜옥씨, 여수시장에 이메일

“여수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큰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2년째 필리핀 감옥에 수감중인 김규열(52) 선장이 자유의 몸이 될 것 같습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마약소지 혐의로 2년째 필리핀 마닐라 시티엘 교도소에 수감중인 여수 출신 김규열씨(광주일보 2011년 1월6일 7면·7월12일 7면)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혜옥(52)씨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5일 김중석 여수시장에게 이메일로 전했다.



지난 7월 10일 김규열(사진왼쪽)씨가 필리핀 마닐라 시티엘 교도소를 찾은 김중석 여수시장을 만나고 있다.

무인들의 비리 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석방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여수에서 태어난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선장으로 활동 중이던 지난 200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한 백화점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수감된 뒤 꾸준히 결백을 주장해왔다.

광주일보 보도로 김씨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자 김중석 여수시장은 지난 7월10일 필리핀 마닐라 시티엘 교도소를 방문해 ‘마약소지혐의가 조작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김 선장을 1시간가량 면회하고 위로했다. 또 마닐라의 벨라스코 대법관을 만나 김씨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통상부는 주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으며,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혜옥씨는 메일에서 “시장님께서 마닐라를 방문했을 때 김 선장을 만나 후 부무부 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조속한 재판을 요청해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며 “많은 한인들에게 큰 용기를 갖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허정무 전 감독 목포국제 축구센터 고문됐다

목포국제축구센터(이사장 정종득 목포시장)는 지난 19일 국내·외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와 센터발전 및 이사장의 자문을 위해 현인 천우나이트드 허정무 감독을 목포국제축구센터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진도 출신인 허감독은 목포중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를 거쳐, 1974~1986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면서 1986년 월드컵 본선 이탈리아전에 출전했

고, 1980~1983년까지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에서 프로선수로 활약했다. 또 2010년 남아공월드컵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했다.

그는 1989년부터 지도자로서 국가대표 감독과 포항제철, 전남드래곤즈, 인천유나이티드 등 프로팀 감독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축구계를 이끌어 온 최고의 지도자이다.

허정무 감독은 축구선수와 축구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일생동안 수집한 기념품과 훈장, 상



패, 기념패, 경기장면 사진 등 소장품을 목포국제축구센터 개장을 기념하여 ‘허정무축구기념홀’에 전시하는 등 목포국제축구센터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 박준영 지사, 전국체전 준비 선수단 격려



박준영 전라남도체육회장이 지난 19일 순천 팔마체육관을 찾아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중인 전남도청, 순천시청 정구팀 등을 격려했다. <전남도체육회>

### 광주U대회 조직위, 대학 총학생회 초청 간담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20일 오전 광주·전남지역 17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 50여명을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초청, 국내·외 대학생들과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광주U대회 조직위 제공>

### 공전제과 윤재선 대표 모교 전남대에 장학금



전남대 공과대학 출신인 공전제과 윤재선(66·전기공학과 1971년 졸업·왼쪽에서 두번째) 대표가 최근 전남대에 후배들의 장학금과 개교 60주년 행사 비용으로 써달라며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남대 제공>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환측**

- ▲이대원(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광주 지사장)·최광주씨 장남 경진(우리은행)군 이성진(사업)·박선희씨 장녀 보라(교사)양=24일(토) 오전 11시 30분 광주 메리터웨딩홀 2층 컨벤션홀.
- ▲이은석(삼성화재 은석보험 대리점 대표)·최광희씨 장남 경현(북동신협)군 김강순·한순옥씨 장녀 루시양=24일(토) 낮 12시 천주교 농성동 성당.
- ▲김성욱(동도종합건설㈜ 부사장)·김성심씨 장남 문성군 장성록·김용순씨 차녀 혜연양=24일(토) 낮 12시 광주 쌍암동 성당 2층 본당.
- ▲조상필(전남발전연구원)·나은희씨 장녀 하나(한국기술)양 서동

**동창·동문회**

- ▲조대부고 제8회 동창회(회장 정현영) 운영위원회 회의=23일(금) 오전 11시30분 8회 회관 062-222-5908.
- ▲광주인성고총동문회(회장 정응환) 체육대회=25일(일) 오전 9시 모교운동장 010-4601-3222.
- ▲광주상고 35회(회장 정업)한 마음 체육대회=25일(일) 낮 12시 대촌중학교(매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남평가는 길)

**향우회**

- ▲재광보성음향우회(회장 주영권) 월례회=23일(금) 오후 7시 광주 남광주시장내 광주아나고 062-223-2929.
- ▲남주최씨 광주 종친총회(회장 최남식) 남최화합어울한마당 대축제=24일(토) 오전 10시 30분 광주

광산 송산유원지 010-7632-6050.

▲한국 범죄계 대중연합회(회장 최남용)=24일(토)~25일(일) 최저 선진지 1박2일 시합 062-263-3220, 010-3604-6865.

▲장흥위씨 광주 종친회(회장 위인백) 3/4분기 모임=27일(화) 오후 6시 30분 화랑공회관(예술의 거리 입구) 011-602-9727.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해법영어 게임교실 학부모 설명회=국가영어능력평가(NEH) 대비

**故 人 之 冥 福 을 빕 니 다**

<p><b>故 김태훈 님(남/82세)</b>          子/子婦: 김주원/박옥순, 주영/지성자, 주홍/이미숙          女/婿: 김희희/김희숙          • 발인: 9월 21일 09시00분          • 장지: 영락공원(임실호국원) • 연락처: 250-4410</p>	<p><b>故 윤학중 님(남/57세)</b>          未亡人: 정재숙          女/婿: 윤지혜, 지선, 경선, 병연          • 발인: 9월 21일 10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03</p>
<p><b>故 이옥례 님(여/80세)</b>          子/子婦: 한병수/정은란, /박혜숙          女/婿: 한미순/이금주, 정덕, 미덕/윤영희, 미심/김재평, 병순/손영호, 정순/김대용          • 발인: 9월 21일 09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09</p>	<p><b>故 윤학중 님(남/60세)</b>          子: 도진성, 진용          女: 도진희          • 발인: 9월 22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14</p>
<p><b>故 박석순 님(남/80세)</b>          子/子婦: 박진영, 진철 / 이현순, 진정 / 공해진          女/婿: 박길자/박경수, 정자/오귀환, 미선/공철남, 미애/김광훈, 미라/최운영          • 호실: 401호          • 발인: 9월 21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3</p>	<p><b>故 김명국 님(남/67세)</b>          子/子婦: 김중호 / 김민욱          女/婿: 김현주 / 박세호          • 발인: 9월 21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6</p>
<p><b>故 이슬기 님(여)</b>          父: 이규운          母: 정은화          • 호실: 101호          • 장지: 영락공원</p>	<p><b>故 이슬기 님(여)</b>          • 발인: 9월 21일          • 연락처: 227-4385</p>

**그린 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76-17

비와 자녀 맞춤형 영어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29일(목) 오전 11시 광주 동구 계림동 금호아파트 후문 앞. 062-526-0505.

**부음**

- ▲김동호씨 별세 현우·아영씨 부친상=발인 21일(수) 두동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 ▲손창중씨 별세 근식·근호·경

**謹 故 人 之 冥 福 을 빕 니 다 弔**

마음까지 편안하 **孝 金 호 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